

■ 신년 인터뷰 박준영 전남도지사

# “F1 개최권료 재협상 해서라도 적자 줄일것”

인터뷰=장필수 사회2팀장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7일 전남도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광주 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될 것을 주문했다.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는 활발한 경제교류와 달리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양국간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논란이 된 ‘충동적 선택’이었다는 호남 표표 발언에 대해서는 와전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박 지사와의 일문일답.  
-다음달이면 새 정부가 출범한다. 바랍이 있다면.  
▲당선인이 약속한 민생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이 바랍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다. 약속 대통령에는 민생 대통령, 통합 대통령도 포함돼 있다. 항상 초심을 갖고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박근혜 당선인은 중국에 가장 먼저 특사를 파견할 정도로 대중국 외교에 비중을 두고 있다. 시진핑 총서기와 의 관계 때문에 주중대사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내가)대중국 외교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지사를 하면서



## F1 광주도 이익... 파급효과 고려해야

### 순천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확실

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외교는 개인적 친분보다 정부간 신뢰가 중요하다. 중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양국간 왕래가 많아 매우 가깝지만 북한을 생각하면 달라진다는 점이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인면에서는 서로 공유하는 점이 많지만 한국과 미국, 북한과 중국이 서로 동맹 상태에서 내전을 치렀던 점을 이해하며 접근해야 한다. 남북한 이해관계가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 미국과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시진핑 총서기를 그동안 네차례 만나 대화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한-중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존의 관계지만 미사일문제 등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중국이 북한측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한중 문제는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을 지낸 입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에 대해 할말이 있을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종속돼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방이 잡아야 한다. 얼마 전 독일 대통령은 지방이 각각 특색있게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은 오염되지 않고 햇빛이 많고 아름다운 해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활용해 창조적인 지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조직 및 정책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고 인구수 중심의 5+2 광역경제권도 폐기돼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90% 이상의 표표를 준 호남 표표에 대해 ‘가볍고 충동적인 선택’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왔다. 진심인가 와전된 것인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진행자가 “호남 표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면 (내 발언이)잘못된 것이겠지만 “표표 호남인이 고립돼 있고 민봉상태에 있다. 치유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물었다. 그래서 감정적·충동적으로 하지 말자고 한 것인데 안타깝다. 호남 표표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치유책으로 한 말이다.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자세를 말할 것이니 더 이상 오해와 논란이 없길 바란다. 두번의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변화해야 한다는 시도민의 열망을 설명한 것이다.

민주당이 잘 할 때는 지지하지만 못해도 찍어주면 안된다. 대선 결과를 보면서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번 선거는 네거티브가 없어지고 정책선거를 해 정치적 수준이 성숙해졌다고 본다. 예전엔 거대한 담론을 갖고 하다 보니 서로 싸우고 했는데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 걱정을 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 걱정을 하다 보니 안철수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최대 현안사업인 F1이 4년째를 맞는다. 흥행은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하지만 수익구조 개선이란 문제는 여전히 다.  
▲개최권료를 줄이고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올해 정부 지원이 예년보다 2배 늘어 100억원에 달하고 특별교부세 등을 받게 되면 최대 100억원대까지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 필요하면 영국 런던으로 날아가 적자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 개최권료 재협상에 나서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적자폭을 줄이겠다.

하지만 F1은 두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첫째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인 만큼 지역민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기업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 올해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스폰서 참여를 위한 마케팅을 할 것이다.  
F1 자체로는 흑자가 안난다. 적자가 나도 그 이상의 돈이 지역에 떨어지면 좋은 것이다. 대회때면 F1 관계자들이 100억을 쓰고 간다. F1 개최로 광주도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 단순히 적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순천만정원박람회가 열리는 해다.  
▲남이 안하는 것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2006년부터 공약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정원박람회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트렌드와 맞는다. 국비도 완벽하게 받았고 올해 건설 공사비도 미리 다 했다. 성공을 의심하지 않는다

▲개최권료를 줄이고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올해 정부 지원이 예년보다 2배 늘어 100억원에 달하고 특별교부세 등을 받게 되면 최대 100억원대까지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 필요하면 영국 런던으로 날아가 적자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 개최권료 재협상에 나서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적자폭을 줄이겠다.

하지만 F1은 두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첫째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인 만큼 지역민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기업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 올해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스폰서 참여를 위한 마케팅을 할 것이다.

F1 자체로는 흑자가 안난다. 적자가 나도 그 이상의 돈이 지역에 떨어지면 좋은 것이다. 대회때면 F1 관계자들이 100억을 쓰고 간다. F1 개최로 광주도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 단순히 적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순천만정원박람회가 열리는 해다.  
▲남이 안하는 것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2006년부터 공약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정원박람회는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트렌드와 맞는다. 국비도 완벽하게 받았고 올해 건설 공사비도 미리 다 했다. 성공을 의심하지 않는다

## ‘충동적 선택’ 민주당 변화 주문 와전

### 무등산 타워 아이디어 차원 말한 것

-충청권에서 KTX의 대전역 경유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일부 오해하고 있는데 KTX 호남선의 노선 변경이 아니라 충청권에 정착역을 달라는 것이다. SOC처럼 국가 기간시설 문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호남선 노선 결정때 충청권에 양보한 적이 있다. 호남만을 생각했다면 보다 가까운 천안을 거치는 노선을 주장했을텐데 충청권 요구대로 오송안을 받아들였다. 정부가 KTX를 전국을 동서남북으로 잇는 ‘X’축을 구상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것이다. 충청 사람들도 모두에게 ‘원-원’이 되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을 계기로 랜드마크 논란이 있었다.  
▲국립공원은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가 좋다는 기본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전남도가 무등산에 518m의 타워를 랜드마크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사실 광주는 외국인 와서 즐길만한 곳이 5·18국립묘지밖에 없다. 반면 전남에는 담양 정자와 장성 팔만사천 등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 널려 있다. 여기에 가치를 하나 더 붙여주는 차원에서 무등산을 1시간이면 들를 수 있도록 케이블 설치와 랜드마크 얘기를 꺼낸 것이다.

랜드마크 문제는 장기적으로 연구해봐야 한다. 무등산 비중에 광주에 더 많은 만큼 광주시민들이 더 고민해야 될 문제다.  
/bungy@kwangju.co.kr

## 기자 노트

### ‘영광원전’ 지명의 굴레

삼수갑산, 삼천포, 옹진. 모두 한반도에 있는 지역 이름이다. 공통점은 이들 지명과 얽힌 관용구가 있고, 한결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것이다. 삼수갑산(三水甲山)은 함경남도에서 있는 산골마을이다. 예부터 죄인들이 귀양가던 곳으로 풀이 깊고 산이 험해 한번 가면 나오기 힘든 오지의 대명사가 됐다. ‘삼수갑산을 가더라도’라는 표현은 사지(死地)를 간다는 비장한 각오가 배어있다.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표현도 있다. 이야기가 결결로 흘러가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엉뚱하게 그르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명과 관련된 이름같은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지명도 유·무형의 고통을 겪고 있다. 영광 주민들이 ‘영광원전’에서 영광이란 지명을 빼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들 지역민의 심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영광원전의 잇따른 고장과 납품비리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전이 지역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



장 필수 사회2팀장

삼천포 사람들은 이 말을 지역차 별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1995년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될때 사천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다.

옹진면은 강진군의 11개 읍·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은 곳이다. 옹진면 전체 인구가 강진읍내 한 마을인 목리(牧里)정도니 얼마나 열악한지 알만하다. ‘목리 이상하지, 옹진면장 안한다’는 말은 마음만도 못한 면이란 무시가 깔려 있다. 거품을 많이 내서 맥주를 따르는 것을 두고 ‘옹진면장 술마르듯 한다’고 표현한다. 지나치게 아끼거나 인색하게 끝내 사용하면 대가 가까운 한 살림살이의 이름이 담겨있다.

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원전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영광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굴비와 모시잎 송편 등 특산물도 수요가 줄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참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거나 고리원전이나

원성원전처럼 ‘군’단위 명칭을 빼달라는 요구하고 있다.

영광원전 명칭변경은 1994년부터 간헐적으로 추진돼왔지만 이번처럼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인 적은 없었다. 주민들은 다음달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서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측에 지명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이다.

한수원측은 비용과 절차 문제를 들면서 아직까지는 명칭 변경에 소극적이지만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길게 끌 문제가 아니다. 지명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해 굴레가 된다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벗겨주는 것이 도리다.

/bungy@kwangju.co.kr

## 4대강 보 설계부실 수질악화 우려

###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가 지난 4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설계된 보가 설계 부실로 내구성이 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약화될 우려가 높으며 수질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7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에 설치된 보는 수문 개방 시 구조물과 보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견디기 어려운 소규모 고정보의

설계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총 16개 보 가운데 광주 보 등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보강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광주보 등 11개 보는 보수도 부실해 2012년 하반기 수문 개방시 6개 보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파악됐다.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개폐 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칠곡보 등 3개 보에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훼손될 우려가 높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철저한 독일 인의 장인 정신

## “행복한 소리”

이제 여러분 곁에 독일보청기가 있습니다.

◆ 다채널 방식 / 100% 디지털 고막형 ◆

- ▶ 전화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 ▶ 음향 이득효과가 큼니다.
- ▶ 신경성 난청에 큰 도움이 됩니다.
- ▶ 피드백 현상이 제거되었습니다.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립니다.
- ▶ 잡음을 자동적으로 제거합니다.
- ▶ 반영구적입니다.
- ▶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중고, 구형보청기를 신형으로 교환가능 (타사 보청기 환영)

독일보청기백화점 광천터미널 건너편 6층 (광명빌딩 603호)  
☎ 062-222-1510 야간 : 062-573-5106

## 경매·소액일반투자

95%적중

###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원룸, 모텔 토지(대지/전/답/입)특수물건

- ▶ 경매 경험 없는 분, 단기간 수익 내실분
- ▶ 소액경매 투자회원 수시모집(회비,교육비없음)
- ▶ 소액경매, 부동산투자, 경험없는 분
- ▶ 소액경매투자 → 500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소액 2천만원, 5천만원 (100% 수익을 보장)
- ▶ 유치권, 특수물건 투자 100% 낙찰 입찰 대리

부동산, 투자, 경매, 권리분석 아지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원룸, 상가, 토지, 모텔 권리분석 전문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

☎(062)376-1128 / H/P 010-7443-6200  
FAX. (062)384-0050 / (062)385-1125  
토지분석전문(시군정) 광주 서구 능동동 64-5  
네이버 카페에서 hankookland로 검색

## 누구나 갖고 싶은 땅을 눈여겨 보십시오!

I. 나주혁신도시-상업용지

- 메인도로3면코너 1080㎡ 매매가 24억5천만원
- 호수공원테라스거리 705㎡ 매매가 14억9천만원
- 호수공원내3면코너 1288㎡ 매매가27억3천만원
- 메인도로코너 1056㎡ 매매가 23억9천만원

II. 나주혁신도시-근린생활용지

- 배후아파트상권 640㎡ 매매가 11억6천4백만원
- 배후아파트상권 610㎡ 매매가 11억6천5백만원
- 배후아파트상권 720㎡ 매매가 12억원

III. 남평강변도시- 상업용지및근린생활용지

- 핵심상권코너 529㎡ 매매가 5억4천
- 핵심상권코너 449㎡ 매매가 4억원
- 핵심상권코너 416㎡ 매매가 4억1천만원
- 핵심상권코너 448㎡ 매매가 5억8천6백만원

나주혁신도시, 남평강변도시 전문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번지

## 목욕탕 매매

15,000세대 독점 성업중으로 실수요자 최적!

- 대 지 : 750평
- 건 물 : 1350평
- 용 자 : 20억~25억 (감정가 58억원)
- 매매가 : 40억원
- 실 준비금 15억~20억원 까지

① 주월동 풍암지구 입구 대로변 코너 상가 대지89평, 건평 292평 매가 6억3천  
② 광산구 운수동 자연복지 도로 접 전1,382평 매가 8억5천(공장, 창고, 기동 등 적합)  
③ 세하동 서광주역 뒤 자연복지(그린벨트) 도로 접 입점1,957평 매가 5억3천(투자최적)

**행운공인중개사**  
011-642-7777

## 가 은 공인중개사

### 무인텔 금 매

“담양” 무인텔  
대 지 : 5,048㎡  
연건평 : 2,474㎡  
객 실 : 32개  
현 성업중  
상무지구에서 15분  
매매가  
상담후 결정

### 염전 금매

해남 염전  
138,600㎡  
신안 지도  
50,000㎡  
매매가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 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일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어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맨10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